

天賜洪福



하늘이 내린 큰 복 | 2022년 08월 10일 제 133-1호 www.minghui.org 진상을 알아 길상을 얻다

전염병을 막는 묘책으로 온 집안이 무사하다

[중국 투고] 2022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형태로 중국에서 다시 나타나 20여 개 도시에서 기승을 부렸다. 정부 측은 우리 지역에서 매일 감염자 수가 네 자릿수로 급증한다면 도시, 구역, 현성, 농촌을 모두 봉쇄했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공포와 절망에 빠졌다.

우리 가족 수십 명은 이 도시 여러 아파트 단지에 흩어져 살고, 어떤 사람은 고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나섰고, 시 위원회나 시 정부 간부가 있는가 하면 공안, 검찰원, 선전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일선에서 방역 작업을 하면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직접 접촉하기도 했지만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

한 친척은 공급보증기업 (중공 바이러스 때 식료품,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사장이고, 아래로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전염병 기간에 기업 주변의 크고 작은 가게에서 양성 환자가 나와 문을 닫거나 휴식했고, 직원들이 끌려가 격리됐다. 한 가게에서 양성 환자가 나오면 근처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까지 불뚱이 튀어 모두 끌려가 격리를 당했다.

우리 지역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정부에서 공식 선언을 할 때까지 수백 명 직원이 근무하는 이 기업에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전염병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면역력이 강한 이유는 우한 바이러스가 폭발하기 훨씬 전에 내가 그들에게 '삼퇴' (중공 공산당·공청단·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급업체 사장을 비롯해 그 밑에 중층 간부 몇 명도 삼퇴를 해줬고, 일부 직원은 가족(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가족)을 통해 '삼퇴'를 했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다들 전염병 상황이 그토록 엄중했는데도 가족 중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정말 '삼퇴'가 평안을 담보한다고 감탄했다.



편집 후기 :

대법이 사람을 구하는 신기한 이야기가 매우 많다. 홍콩 양 여사의 집은 중국과 홍콩 국경지대에 있다. 파룬궁 (法輪功) 수련자인 양 여사는 전염병 기간에 사람을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문밖에 '역병이 왔을 때 목숨을 지키는 좋은 방법,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껏 염하세요'라는 큰 현수막을 내걸었고 남편도 지지해줬다.

수막을 내걸었고 남편도 지지해줬다.

이때부터 그녀 마을 밖에서 신기하게 역사가 자라 역세 초원이 펼쳐졌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경치에 많은 홍콩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양 여사 문 앞에 걸어놓은 '목숨을 구하는 좋은 방법'도 관광명소가 됐다.

한 주민은 마을에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아서 신기하다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이 9자 진언 (九字真言)이 정말로 엄중한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어느 날, 네 명의 퇴직 근로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민 (张民, 가명)은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삼퇴 (중공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권유했다. 한 노인은 "공산당이 당신에게 노임을 주는데 공산당을 반대하니 양심이 있소?"라며 몹시 화를 냈다.

장민은 말했다. "형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님 몇 분에게 평안할 기회를 드리려고 몇 마디 진실한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해 저도 형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민은 이어서 말했다. "요즘 근로자들

은 모두 15년 치 사회보험료를 내야 양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 퇴직이라고 하면 걸으려는 국가가 주는데 나랏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입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모두 국가 재정에서 봉급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납세자들이 내는 돈입니다. 공산당 자신은 산업이 없고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몇 명의 노동자들은 문득 "결국은 우리가 공산당을 먹여 살리는 것이지, 공산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네"라고 크게 깨달았다. 그들은 잇달아 '삼퇴'했다.

지적장애 아들이 인재가 되다

글 / 후이전 (惠珍)

내 아들은 어렸을 때 많은 시련을 겪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반 일찍 태어나고, 겨우 2.5kg 이 조금 넘었다. 태어나 한 달간 눈 감고 뜨지 않았으며 입술이 검푸르고 울지도 웃지도 않아 어머니는 감히 목욕도 시켜주지 못했다.

한 살 반쯤 됐을 때, 병원에서 장중첩증(腸套疊)으로 오진해 수술까지 받아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거의 달마다 열이 나고 기침해 링거를 열흘 넘게 맞아 야 나왔다.

세 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 해 동료들은 지적장애 아들을 낳았다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몸이 허약해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이 공법이 좋다는 걸 몸소 느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함께 수련하자고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는 여름방학 때 수련하겠다고 했다. 아들이 방학 때 공원에서 공법을 배우고 며칠도 안 돼 광적인 박해가 시작됐고 그 해 아들은 막 11 살이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전법륜(转

法輪)'을 읽고 매일 연공했다. 아들은 더 이상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아 더는 항생제를 맞을 필요가 없었다.

2000년 '10.1' 휴가 때, 나는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2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베이징에 갔다. 열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텐안면으로 향했고, 텐안면 광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진상 전단지(傳單)를 나눠주면서 좋은 사람을 박해한 장쩌민의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

2000년 11월, 네 번째로 베이징에 갔을 때 수련생들과 함께 텐안면 광장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현수막을 펼쳤다. 그 후 나는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소에 갇혔다.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남편은 그를 기숙학교에 보냈다. 한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현수막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서명하지 않았고 짝꿍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1년 8개월의 불법 수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야위고 허약했던 아들



은 뜻밖에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자랐으며 품행과 학업이 모두 우수했다. 나는 대법, 그리고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아들을 보살펴주셨다는 걸 알았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들은 이미 키가 184cm 까지 자랐고, 성적이 우수하고 남을 진심으로 대하며 기꺼이 도와주었다. 부반장으로서 학급에서 정제수 같이, 약 뿌리기, 전구 같이, 짐 나르기 등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을 앞장서 했기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다.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현지 명문대에 입학했고 그 후 베이징 명문대 대학원까지 마친 뒤 대기업에 입사해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됐다.

자손에게 영향 줄 수 있다며 재판장이 명단서 삭제 간청

[중국 투고] M은 형사 법정 재판장이며 전부터 알고 지냈다. 어느 날, M 재판장이 갑자기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는 자신이 국외 파룬궁 박해자 추적명단에 들어가 있음을 안다며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M은 파룬궁 수련자에게 형을 선고한 일은 '610'과 정법위에서 강제로 지시해 따른 것으로 그가 판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판결받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그는 자신이 추적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자신과 후대 자손에게 끼칠 영향을 몹시 걱정하며 아울러 다시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M의 생각은 중국 관료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말하며 백여 개 나라에서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공법이다. 중국 현행 헌법에서도 국민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박해는 국제인권선언을 위배했고 중공 자신

이 제정한 헌법도 위반했다.

국제적으로 박해자의 책임을 묻고 있기에 박해한 적 있는 중공 관료는 모두 퇴로를 찾고 있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에 종사하는 직원이 중공의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서 몇 개 사례를 들겠다. 한 재판장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핍박한 상급과 '610' 직원에게 말했다. "누군가 먼저 서명하면 제가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누구도 감히 책임을 감당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어느 법원의 형사 재판

을 주관하는 부원장이 말했다. "나는 모든 파룬궁 사건에 대해 병보석 결정을 내려 시간을 끌었습니다." '610'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기구로 그중에도 명백한 사람이 있다. 어느 한 지역의 '610' 주임이 말했다. "나는 파룬궁에 대해 겉으로 박해하는 척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명예 회복을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박해에 참여해 나쁜 일을 한다면 명예 회복 날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스스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가 연루될 것이다."



현재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중공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죽음의 신도 비껴가다

글 / 뤼산 (若善)



나는 태어날 때 텃줄이 목에 감겨 죽을 뻔했다. 의사의 응급처치로 살아났으나 편마비 장애가 생겼다. 오른손 장애에 왼손도 원활하지 않았고 두 다리는 거의 걸을 수 없었으며 말하기도 어려웠다. 다행히 정신과 지능에는 문제없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

1 두 가지 암 진단을 받다

대학 다닐 때 1년 이상 머리가 아팠다. 매일 진통제를 먹었으나 두통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얼굴 반쪽이 자주 저리고 시력과 청력이 많이 떨어져 뇌가 가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으로 종종 교실에서 자습하다 침실로 돌아가 휴식해야 했다.

1997년 5월 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생활과 건강' 잡지에 실린 글에서 비인두암의 말기 증상이 당시 내 증상과 똑같음을 알았다.

나는 즉시 어머니께 편지로 알려드렸다. "어머니, 제가 비인두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차를 타고 급히 달려와 시급 병원에 데려갔다.

CT 촬영을 두 번 거친 후 전문가들은 '악성 뇌종양 말기'인데 두개골이 모두 암세포에 침식됐다고 했다. 당시 두개골 안에 퍼져 있던 악성 종양이 청각 신경과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두 차례 생체조직검사 끝에 말기 비인두암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기껏해야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 생명이 23살 되던 해에 끝날 것 같았다.

2 유전병에서 벗어나다

머리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은 수술로 제거할 수 없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코피가 났는데 어떤 때는 멈추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뒀다.

방사선에 의한 목 피부 손상으로 목 피부도 헐었다. 입도 짓무르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형벌을 받듯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억지로 밥을 먹여서 먹었고 정말 굶어 죽고 싶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에 달걀만 한 덩어리가 생겼다. 비인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더 이상 방사선 치료도, 화학요법도 원하지 않았다. 두 가지 치료로 인한 강력한 부작용은 죽음을 앞당길 뿐이었다. 나는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감히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방사선 치료 중 하루는 머리가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린 날 보시며 애써 위로하면서도 굶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본 나는 울음

을 그쳤다.

목에 종기가 생기자 얼굴도 급속히 부어 두 배 가까이 커졌고 눈도 가늘어졌다.

날 보고 너무 슬픈 할머니는 눈물이 그치지 않으셨다. 큰아들, 즉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면을 재연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옷을 입혀야 할지 몰래 의논하셨다.

3 절망 속에서 대법이 구해준다

어머니는 수년간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심한 심장병으로 심박동이 느려(분당 심장 박동은 겨우 40여 번임) '속효 구심환'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

그 외에도 비염, 결장 궤양, 담낭염, 오십견, 빈혈, 두통,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 등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각종 기공과 태극권을 배우며 몸을 단련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우연한 기회에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혈색이 좋아지고 원기가 왕성해지면서 더는 의기소침하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변화를 본 나는 정말 기뻐다. 어머니는 나에게 '전법륜'을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당시 열심히 책을 읽지 않았다. 파룬궁을 일반적인 기공으로 여긴 나는 몸도 느슨히 할 수 없어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기계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무감각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나는 거의 죽을 것 같았다. 1997년 하반기에 어머니는 이 책은 어떻게 마음을 닦고 선(善)을 향하는 좋은 사람으로 되며 어떻게 명예와 이익을 담담히 보고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함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나에게 파룬궁의 주요 저서 '전법륜'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 후 어머니는 또 파룬궁 수련생들이 쓴 수련 체험 모음집 두 권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파룬궁은 많은 불치병 환자를 다시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마음을 빠르게 정화하고 향상한다는 점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모음집을 다 보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다. (4면에 계속)

◆ (3면에 이어서) 그 순간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1998년 2월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연공을 시작했고 매일 함께 '전법륜'을 읽었다. 몸과 마음이 끝없는 불법(佛法) 속에서 빠르게 수혜를 입었다. 사실 '전법륜'을 처음 봤을 때 사부님께서 이미 날 책임지셨는데 목 부위에 있던 종양이 그때 가뭇없이 사라졌다.

연공에 참가한 지 며칠 후 어느 날 밤, 비몽사몽 상태에서 큰 손이 머리에 들어가 무언가를 잡아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머리를 청리하셨음을 알았다. 이때부터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년여 만에 나는 의외로 좋은 직장을 얻었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지혜가 열려 일을 한 후 짧은 시간 내에 그다지 민첩하지 않은 왼손으로 빠르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었다.

4 자기를 수련하며 스스로 단속하는 좋은 사람이 되다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들에게 어디에서나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일에 참여한 후 자신을 장애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 소나기에도 상관없이 매일 제



2019년 11월 대만 파룬궁 수련생 인각을 새기다.

때 출퇴근하고 지각하거나 조퇴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인 일로 인한 업무 지연도 매우 적었다.

2007년 말, 교육 주관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로하며 지원금을 줬는데 신임 교장은 나를 1순위로 뽑았다. 1년간 학교는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교장의 호의를 완곡히 사절했다. “저는 가족 부담은 별로 없으니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께 기회와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교장은 놀라며 감탄했다.

직함 승진은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였다. 나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직함은 시종 변하지 않았고 초급 직함의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도 불평한 적이 없고 시종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일했다.

2012년 교장이 인사국을 찾아가 내 직함 승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교장이 전화를 걸어 ‘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귀뜸했다. ‘교사’ 자격증을 만드는 것은 조작이므로 나는 거침없이 거절함과 아울러 교장의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장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내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자질을 우리 선생님들이 반만 갖춘다면 교장 노릇 하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23살에 죽음의 신과 스쳐 지나고 진선인(真·善·忍)에 동화하는 행복한 생명이 될 수 있던 것은 자비롭고 위대하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웃 아주머니

“방송국의 선전이 잘못된 것”

[중국 투고]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당시 중국 텔레비전 방송의 제멋대로 된 선전으로 많은 사람이 기만당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마저 ‘분신자살’ 사극의 허점을 간파하고 있다.

나의 이웃 아주머니는 진상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주머니는 “리 선생님께서는 아예 살생도 못 하게 하시고 자살도 허락하지 않으셨어. 방송국의 선전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했다.

파룬궁 서적에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파룬궁 서적을 읽으면 중공의 거짓말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텐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에 드러난 뚜렷한 허점

1 경찰은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분신자살’ 점화 1분도 안 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왔을까?

경찰은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2 돌발 사건에서 화면이 안정적이고 또렷하다

‘분신자살’은 돌발사건이다. CCTV에서 촬영한 화면은 안정적이고 또렷하며 영상은 원경, 근경과 클로즈업까지 갖췄다. 사전 배치가 없이 가능하겠는가?

3 류춘잉은 맞아 죽은 걸까, 화상으로 죽은 걸까?

CCTV의 느린 화면에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류춘링(刘春玲)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즉시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류춘잉은 맞아 죽은 걸까, 화상으로 죽은 걸까?

4 휘발유가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사이다병이 새것처럼 새파랗다

왕진동(王进东)의 옷과 몸(왼쪽 사진)은 모두 불에 탔으나 그의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가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사이다병이 새것처럼 새파랗다.

5 기관을 절개하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CCTV는 류쓰잉(刘思影)이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했으나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의학 상식에 어긋난다.



‘삼퇴’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기에 실명, 가명, 애명으로 모두 탈퇴 가능합니다. 봉쇄돌과 프로그램으로 탈당 사이트 tuidang.epochtimes.com 에 접속해 ‘삼퇴’ 성명하시길 바랍니다.